



# 한덕수 총리,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

- 바이오헬스·반도체·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, 금융투자,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방안 논의 -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(금)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‘NextRise 2023, Seoul’\* 행사를 참관하고,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·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\*\*를 가졌다.
  - \* 벤처·스타트업, 대중견기업,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(산업은행·무역협회 공동 주최)
  - \*\* △(기업)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(김재은), 랩앤피플 대표(조성윤), 알세미 대표(조현보), 파블로항공 대표(김영준) △(정부·기관) 중소벤처기업부 차관(조주현), 산업은행 회장(강석훈), 한국무역협회 부회장(정만기)
- 특히,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·차세대 반도체·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·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 -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&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,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  -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,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.
    - \*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(위성데이터 활용), 링크플로우(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인증)
-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·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, 규제 심판제 운영,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·승인,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,
  - 벤처·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종학	044-200-2221
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이상우	044-200-2223

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제가 작년에 넥스트라이즈에 우리 산은 회장님하고 같이 왔고,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작년에 왔을 때 거기에 모이셨던 분들 중에 애로사항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, 한 분은 위성지도의 데이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우리가 4m까지 허용 되는데,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다, 이래서 저희가 여러 관련 기관하고 협의 해가지고, 1.5m로 줄인 기억이 나구요. 또 하나는 웨어러블 카메라나 무선 영상 전송 기준이 없어가지고, 이 부분을 개발을 해가지고 팔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서, 과기부하고 관련 되는 기관들 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서, 요즘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최고의 역점을 둔 것이 규제 혁신이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일련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서, 1,027개를 개선을 했고, 전체적으로 그것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70조 정도 된다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일들 하고 그러한 일 중에서 또 특별히 애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고쳐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